

홈플러스, 29년 역사 끝나나… ‘견련파산’ 현실화 가능성

〈牽連破産〉

전국점포 영업 임시중단

2000억대 자금조달 대책 ‘안갯속’
상품권 활용 등 현장 극심한 혼란
파산시 담보신탁 점포 향방 촉각

삼성그룹에서 출발해 국내 대형마트 시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홈플러스가 출범 2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업계에서는 오는 20일까지 추가 자금 조달에 실패할 경우 일반 파산이 아닌 ‘견련파산’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경우 우량 점포 매각 등을 통해 유통업계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4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고갈로 지난 13일부터 본사와 전국 67개 대형마트 점포의营业을 임시 중단하며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화생법원은 지난 3일, 회생에 필수적인 최소 긴급운영자금 2000억원을 조달할 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즉시항고 기한인 이달 20일까지 홈플러스가 자금 조



14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입구가 쇼핑 카트로 막혀 있다.

/뉴시스

달 방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회생절차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추가 자금 투입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신규 대출을 요청받은 메리츠금융그룹도 배임 우려 등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난이 극에 달하면서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13일 오전 운영 중이던 67개 점포의 휴업이 발표되면서 상당수 직원이 상황을 모른 채 출근했다가 발길을 돌렸고,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도

정상적인 안내를 받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특히 소비자들이 보유한 홈플러스 상품권이 휴지 조각이 될 처지에 놓이면서 항의가 빚발쳤다. 이런 가운데 14일 오후로 예정되었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홈플러스 노조 간의 공식 면담마저 MBK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당일 아침 취소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일반 파산이 아닌 ‘견련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견련파산은 회생절

차가 폐지된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직권 또는 기업의 신청으로 곧바로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로, 회생절차에서 발생한 공익채권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홈플러스의 공익채권은 협력업체 납품대금과 임직원 체불임금, 퇴직금 등을 포함해 약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업계는 일반 파산으로 전환될 경우 채권 신고와 변제 순위가 다시 정리되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공익채권자 보호를 위해 견련파산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파산이 현실화 되면 홈플러스 점포 중 메리츠금융그룹에 담보신탁으로 묶인 62개 알짜 점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메리츠가 담보권을 활용해 우량 점포만 골라 파는 ‘선별 매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인수 후보로는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점포를 분할 인수하는 방안과 함께, 도심 물류 거점 확보를 노리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의 인수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대형마트 산업 자체가 침체기를 겪고 있어 실제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1면 ‘후 대통령 물가·부동산…’서 계속

“수백억대 ‘똥똥한 한 채’ 세제 감면은 문제 있어”

이어 “이러한 눈부신 수출 실적과 설비투자 증가를 바탕으로 올해 실질성장률이 3%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있따르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경제대전환을 가속해야 한다.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다음 주 예고된 가운데, 공급·금융·세제 등 부처별 주제 토론회가 이날부터 3일간 열린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보고받은 후 “똥똥한 한 채가 우리 사회의 축적된 문제”라며 “통상적인 한 채이면 모르겠는데 ‘100억이도 실거주 1주택이면 감면해주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는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냐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다. 부수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겠다”면서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주택 분야에 있어서는 조세가 많이 왜곡, 변형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공제를 해주고, 빼주고 있어 조세의 기본적인 기능을 못하는 게 문제”라며 “그렇게 하다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됐다.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를 보였다.

/서예진 기자 syj@

>> 1면 ‘내년 최저임금…’서 계속

“최저임금 제도개선 필요”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상·하한선을 설정하는 ‘심의축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이후 표결을 거쳐 최종 금액을 확정하게 된다.

◆공익위원 “현행 최저임금 제도 전면 개편해야” 정부에 권고

한편, 이날 공익위원들은 올해 심의에서 부결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방식과 결정기준 등을 연구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를 정부에 권고했다.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에서 “AI 확산, 플랫폼 사업의 성장, 산업 구조의 재편 등 급변하는 시대에 최저임금 심의가 매년 유사한 논의로 공전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논의의 진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대상, 결정기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결과가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삼성, 차세대 폴더블폰 공개 임박… ‘엑시노스’ 활용 주목

엑시노스2600, 성능 긍정적 평가 비메모리 사업 수익성 개선 기대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생태계를 견고히 다져가는 가운데, 차세대 폴더블폰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엑시노스2600’이 얼마나 탑재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엑시노스2600의 채택 확대 여부가 비메모리 사업 수익성 개선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갤럭시 언팩 2026’을 열고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폴드8·플립8’과 새로운 인공지능(AI) 기능을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갤럭시 Z폴립8이 전작인 갤럭시 Z폴립7과 달리 지역별로 퀄컴과 엑시노스 AP를 나눠 탑재할 가능성에 무



삼성전자 ‘엑시노스 2600’

게를 두고 있다. 엑시노스2600은 한국·유럽·남미 등 일부 지역 판매 모델에 적용되고, 미국과 중국 판매 모델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5세대’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갤럭시 Z폴드8과 와이드폴드에는 전 지역에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5세대’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엑시노스2600은 올 초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되며 성능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작 대비 중앙처리장치(CPU) 연산 성능은 최대 39%, 생성형 AI 성능은 113% 향상되며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업계에서는 이번 폴더블폰에도 엑시노스2600의 탑재 비중이 확대될 경우 이를 설계·생산하는 시스템LSI·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흑자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메모리 사업은 아직 적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플레그십 칩인 엑시노스2600의 판매 물량이 늘어날수록 수익성 개선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모바일 AP 시장에서 엑시노스의 점유율은 7%로 전년 동기(5%)보다 2% 포인트 상승했다.

아울러 엑시노스2600 확대는 원가 절감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 상승으로 부품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모바일 경험(MX)사업부의 수익성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엑시노스2600은 퀄컴의 플레그십 AP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 원가 절감과 수익성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엑시노스2600의 성능이 전작보다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플립 시리즈에서 채택 비중이 확대된다면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의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다만 실제 탑재 비중은 출시 이후 지역별 판매 전략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中 철강업계, 전기강판 등 공세 확대… 韓, 고부가 전략 ‘시험대’

中, 자동차강판 등 추격 거세

중국 철강업계의 공세가 연연·후판 등 범용재를 넘어 전기강판·자동차강판 등 국내 업계의 미래 고부가 제품군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술력으로 중국의 물량 공세를 따돌리려던 ‘고부가 차별화 전략’도 정면 경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근 티타늄 사업 전면 철수를 검토 중이다. 포스코가 지난 2008년 진출해 2010년 상업 생산한 티타늄은 강철보다 약 40% 가볍고 강도·내식성이 뛰어나 방산·우주항공 등에 쓰이는 고부가 비철금속이다. 국내 유일의 티타늄 코일 판매 생산업체지만, 중국산 저가 제품의 시장 잠식으로 생산

량이 과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고 적자가 누적됐다.

전기차 모터 핵심 소재인 전기강판에서도 중국의 추적이 가시화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용 변압기 수요까지 늘면서 전기강판은 국내 철강사들의 핵심 성장 제품으로 꼽힌다.

중국 철강 전문매체 아웃룩 위클리리는 지난 5월 중국 철강기업 서우강이 지난해 8월 두께 0.10mm의 자동차 구동모터용 무방향성 전기강판을 출시했다고 보도했다. 회사 측은 신에너지차 모터의 소형화·고출력을 겨냥한 제품으로 출시 후 10여개 완성차 업체가 협력 의사를 밝혔으며 기존 0.25mm 제품보다 철손을 30% 이상 낮췄다고 설명했다.

국내 선두 주자인 포스코는 철손 3.5W/kg 이하의 고효율 전기강판 브랜드 ‘하이퍼노’를 앞세우고 있다. 하이퍼노 제품군 가운데 0.15mm 초극박 무방향성 전기강판도 상용화했다.

임종호 순천제일대 제철산업과 교수는 “전기강판은 얇을수록 압연·평탄도 확보가 어렵지만 두께만으로 경쟁력이 결정되진 않는다”며 “청정강 제강부터 주조·압연·열처리·절연코팅까지 전 공정 관리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모터 효율을 좌우하는 전기강판뿐 아니라 차체 안전성과 경량화를 책임지는 자동차 구조재에서도 중국의 기술 고도화가 뚜렷하다. 중국 하북강철(HBIS)은 체리자동차와 지난해 12월 2400MPa급

초고강도·고인성 열간성형강을 개발해 도어 충돌방지범형성과 실차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2400MPa가 사실이라면 놀라운 기술 진전”이라며 “자동차 구조재에서 한중 기술 격차가 좁혀질 경우 생산 규모에서 열세인 국내 업계의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자동차용 초고장력강 브랜드 기가스틸을, 현대제철은 3세대 초고장력강과 핫스탬핑강을 앞세워 고부가 자동차강판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기술력은 이미 상당히 뛰어난 단계에 올라섰다”며 “타사가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고망간강 등 8대 핵심 제품을 중심으로 가능성 고부가 전략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chalschals@

